

전주시, 친환경 면생리대 지원

드림스타트, '시크릿박스' 지원하는 '소중한 내몸愛(애)' 프로그램 실시

최근 '발암물질 검출' 논란으로 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전주시가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발암물질이 걱정없는 면생리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면생리대와 위생팬티, 파우치가 담긴 시크릿박스를 지원하는

'소중한 내몸愛(애)'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여성신소인협회가 아이들의 건강 성장을 위해 여러 사람들에게 기부를 받은 면생리대를 드림스타트에 기부하면서 마련됐다.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드림스타트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30명

을 대상으로 면생리대와 위생팬티, 파우치가 담긴 시크릿박스를 지원하는

김민근 기자

전주시 성장·발전 위한 시민 아이디어 공개 모집

전주시가 도시의 성장과 발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개 모집한다.

시는 내년도 국가 예산사업 신청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과정에서 시민 및 대학(원)생들의 정책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하기 위해 오는 10월 20일까지 국가 예산 신규사업 제안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전주의 성장·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할 국가 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주제로 진행되며, △정부정책과 부합되는 신규사업 △대통령 지역공약사업과 연계되는 신규사업 △지역균형발전 관련 신규사업 △기타 전주시 특화사업을 향상시킬 신규사업의 4개 제안분야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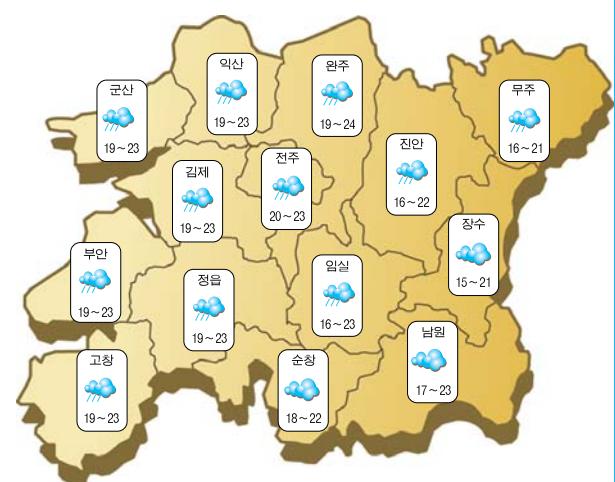
시는 접수된 제안들을 대상으로 창의성과 경제성, 실용성 등을 평가하고, 실무부서의 검토와 실무위원회 및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채택된 아이디어는 전주시 국가예산 신규사업 정책에 반영된다.

응모는 전주시 홈페이지 (www.jeongju.go.kr)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www.epeople.go.kr)의 공모제안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공모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63-281-2106)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9월 27일 수요일 해음 06:23 | 해진 18:26 | 달뜸 22:47 | 달짐 10:39

낙씨 최저기온 16~20도 최고기온 21~23도



'추석연휴 가족과 함께 전주동물원으로 오세요'

전주시, 연휴기간 동물원 정상 운영

생태동물원으로 딸려온 중인 전북 전주동물원이 올 추석 연휴기간 시민과 귀성객 등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해 문을 연다.

전주시는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동물원을 정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번 연휴기간 동안 전주를 찾는 귀성객 및 관광객들이 동물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환경정비를 비롯해 벤치와 평상, 유모차 등 각종 편의 시설에 대해 보수·정비했다. 또 동물사 주변 관광로 정비 및 방사장 내 무성하게 우거진 풀을 제거해 깨끗한 관광환경을 조성했다.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사회적응력과 여러 가지 직업체험을 통한 자존감을 향상 및 평소 이용하기 힘든 자하철 이용하기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원주 관내 중등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담당교사 35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한국잡월드에서 방송국, 패션쇼, 개인개발, 군인 체험 등 다양한 직업체험 활동을 통하여 자립능력과 독립성을 기르고 롯데월드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다음날 행사에는 평소 이용하기 힘든 자하철을 직접 표를 사고 노선표를 보고 목적지까지 이동해 보는 일상 생활훈련을 하고 경복궁에서는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원주=이중복 기자

김민근 기자

의산시-원광대

사회적 경제 위한 업무협약·심포지엄 공동 개최

의산시와 원광대학교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26일 원광대학교 송산기념관에서는 정현을 익산시장과 김도중 원광대학교총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번 협약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

델로 각광받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익산시와 원광대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지역사회 수요 인력양성과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현안을 함께 공유해나갈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14살 소녀들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건너편 횟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미안합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
교과
도서

자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수빈, 배윤서, 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횟단보도를 건너니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경향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리다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있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걸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리게 되었습니다.